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정 노조법 설명회 개최

-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관내 8개 지자체의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지청장 연창석)은 3월 27일 충북도청을 비롯한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기준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지자체와 지청 간 ‘핫라인’을 구축, 향후 상시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노동기준조사1과	책임자	과 장 남 성 옥 (043-299-1216)
		담당자	팀 장 방 성 복 (043-299-1152)